

해양환경놀이책

# 두루미 두루미 두루미



환경과 사람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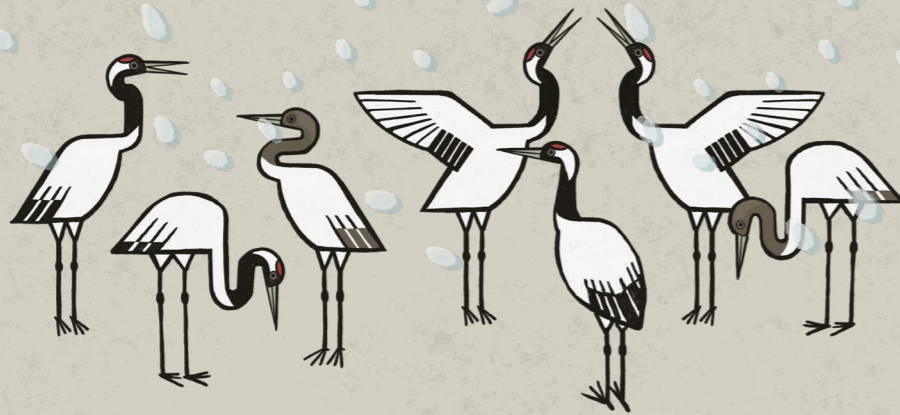




책자다운로드



생태지평소개



# 두루미 드림



이 책은 누구나 흥미롭게 읽으며  
환경에 대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든 책이에요.

중간중간 QR코드를 발견한다면  
재미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봐도 좋아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재미있는 그림도 보고  
퀴즈도 풀고, 미로 찾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다 보면  
어느새 두루미에 대해서  
이미 알아버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두루미를 만나러 가볼까요!

지원  Heungkuk x  해피빈 기부자와 함께하는

멸종위기종 두루미로 배우는 환경 교재 제작 프로젝트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자와 출판사  
양측의 허락 없이는 이 책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거나 옮겨 실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요

유튜브에서 '생태지평'을 검색하고, 재생목록에서  
'두루미 드림'의 영상을 모두 볼 수 있어요.

 QR코드를 찍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 상태로 QR코드를 비추고,  
링크가 연결되면 터치하세요.



세상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루미 드림 특집을 맞아  
<7시 네 고향 두루미편>을  
생생하게 담아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도 두루미,  
저기도 두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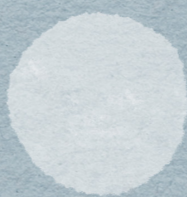
한국에 모여드는  
두루미가 쿵쿵쿵

세계적으로  
멸종위기라는 두루미  
한국에는 참 많이 온다고?





매년 한국을 찾는 두루미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요,  
역시 사계절이 아름답고 강산이 푸르른 우리나라에  
모여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걸지도요!







그때 보이는 다정한 두루미 가족!  
여유롭게 경치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루미 가족!

아잇 놀래라!  
무슨 일이시죠?

??

안녕 못합니다!

7시네고향



루비님, 어찌다 한국에  
이렇게 많은 두루미가 오는 건가요?

우리라고 뭐 좋아서  
여기에 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곳은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오는 거죠...

별 이상한 걸 다 물어보는구만...

???

두루미

두부리

두비두

오잉?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나라가 강산이 아름답고  
환경이 깨끗해서 모여드는 게 아니었던 건가요?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

표정을 보아하니 뭔가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가 좋지 않은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네, 전깃줄이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나?

난 그렇게 전깃줄 때문에  
가족과 친구를 많이 잃었어.

이것만 없다면 지금쯤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눈으로는 전깃줄을 잘 볼 수가 없어서  
하늘을 날다가 혹시라도 줄에 걸리기라도 하면  
날개가 부러진단네.

그렇게 다치면 다시는 날 수 없게 되고  
날아다니지 못하는 새는 곧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네





하여간 두루미로 살아남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라고! 에잇!



스스스스...

진정해, 두비두...

어이쿠!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ㄱ ㄱ ㄱ

이번에는 저기 앉아 계신  
재두루미씨에게 다가가 볼게요!

실례합니다. 두재비씨.  
질문 한 가지만 여쭙 볼게요!

두재비

고독한 재두루미



혹시 두루미가 한국에서  
살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전깃줄 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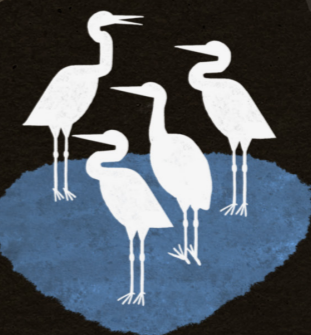


여기 살기 어려운 이유야 많지.  
배가 고파서 먹은 농작물에  
농약이 뿌려져 있는 바람에  
그걸 먹고 죽는 두루미도 있고,



자그마치 1천 km를 날아 왔는데  
개발로 쉼 곳이 사라져서 지쳐 쓰러지는  
두루미도 있다우.





그나마 우리가 머무를 수 있었던 공간도  
건물 짓고 도로 만들고 하느라 사라지니  
어쩔 수 없이 살 곳을 찾아  
점점 좁은 곳으로 모여들 수밖에...



그렇게 좁은 곳에 많은 두루미가 모여 살면  
먹이도 부족해지고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된다우.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 우리끼리 거리두기를 하는 게 쉽지 않지.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두루미는 많아졌지만  
사는 건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군요.  
이제야 모든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두루미로 살아남기란  
쉽지가 않네요...





엇, 잠시만요! 왜 이러죠?  
갑자기 모든 것이 흐릿해 보이는걸요?  
공항? 전깃줄? 농약? 이게 다 뭐죠?

으아아아아~



으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눈을 뜨니 아침이에요!

분명 두루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이런, 꿈을 꾸었나 봐요.  
그나저나 이제 잠에서 깬으니  
어서 먹이를 찾아야겠어요.







이곳은 인간이 없는 지구입니다.





전 세계 두루미류는 총 15종!

그중 책에 나온 2종을 알아볼까요?

두루미 © 전선희



### 두루미

전 세계 2,800~3,300 마리  
천연기념물 제 202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몸길이 136~140cm(부리끝~꼬리끝)  
날개를 피면 240cm

눈 오는 날  
재두루미  
가족을  
만나세요!



### 재두루미

전 세계 5,500~6,500 마리  
천연기념물 제 203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몸길이 127cm(부리끝~꼬리끝)  
날개를 피면 180cm



재두루미 전영재 © 4.0 DEED



두루미 서식환경!

두루미는 무엇 먹죠?

떨어진 곡식이나 미꾸라지, 개구리를 먹어요.  
갯벌에서는 망둥어나 칠게를 주로 먹어요!



두루미의  
울음소리가  
궁금하지  
않나요?



두루미 서식환경!

두루미는 어디 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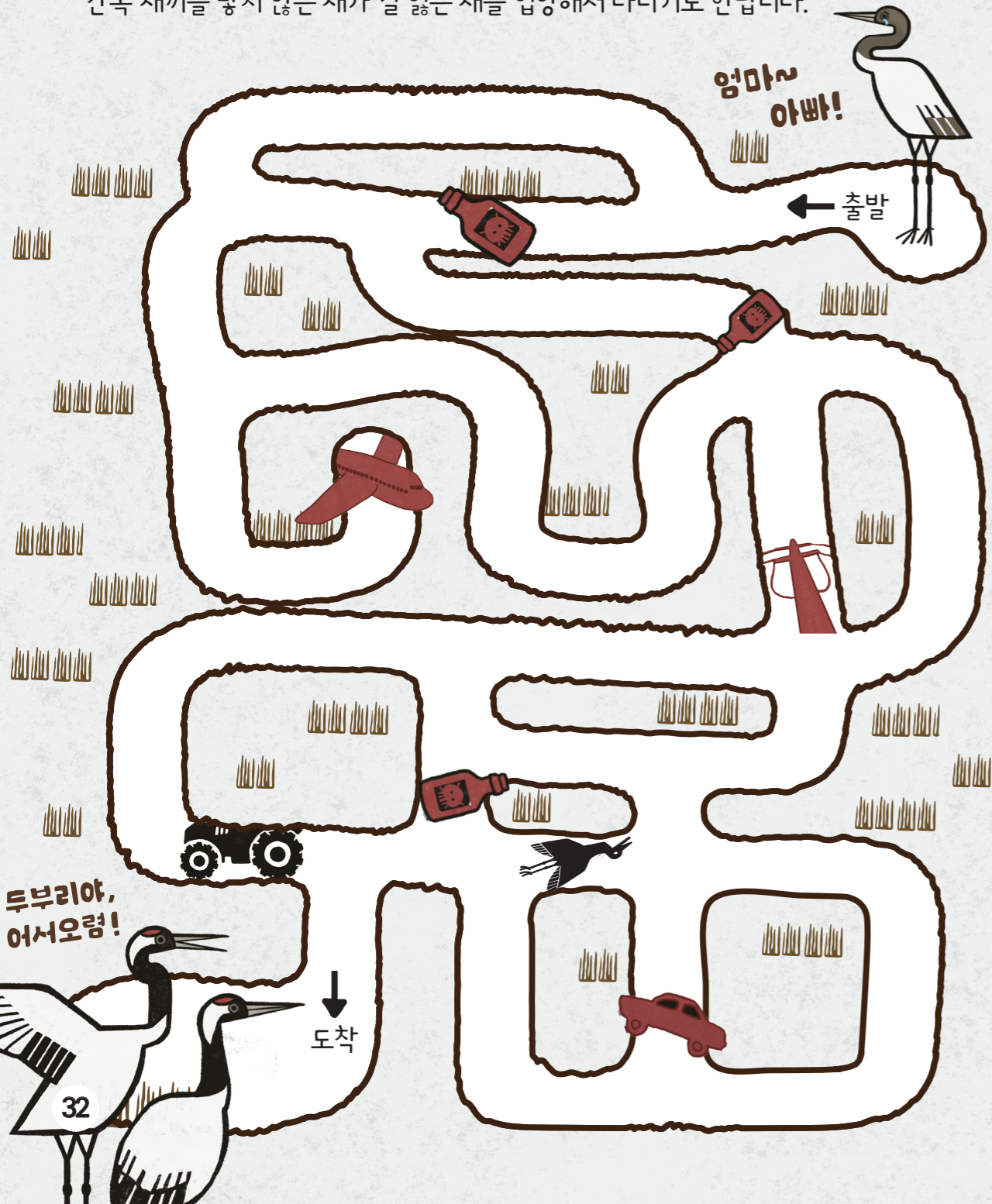


미로놀이

구불구불 미로를 지나 부모 두루미를 찾아가요!

두루미는 2~3마리의 가족 단위로 다니는 것이 특징이에요.

간혹 새끼를 낳지 않은 새가 길 잃은 새를 입양해서 다니기도 한답니다.



새끼 새를 '유조'라고 불러요.
다 큰 새는 '성조'라고 하죠.
사람도 어른을 '성인', 아기를 '유아'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영재 (cc) 4.0 DEED

유조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설 수 있어요!

태어날 때는 깃털 색이
갈색이지만 크면서 점점
흰색으로 변해요!

태어난 지 100일 정도면
성조만큼 크기가 커져요!

완전한 성조가 되려면
3년의 시간이 걸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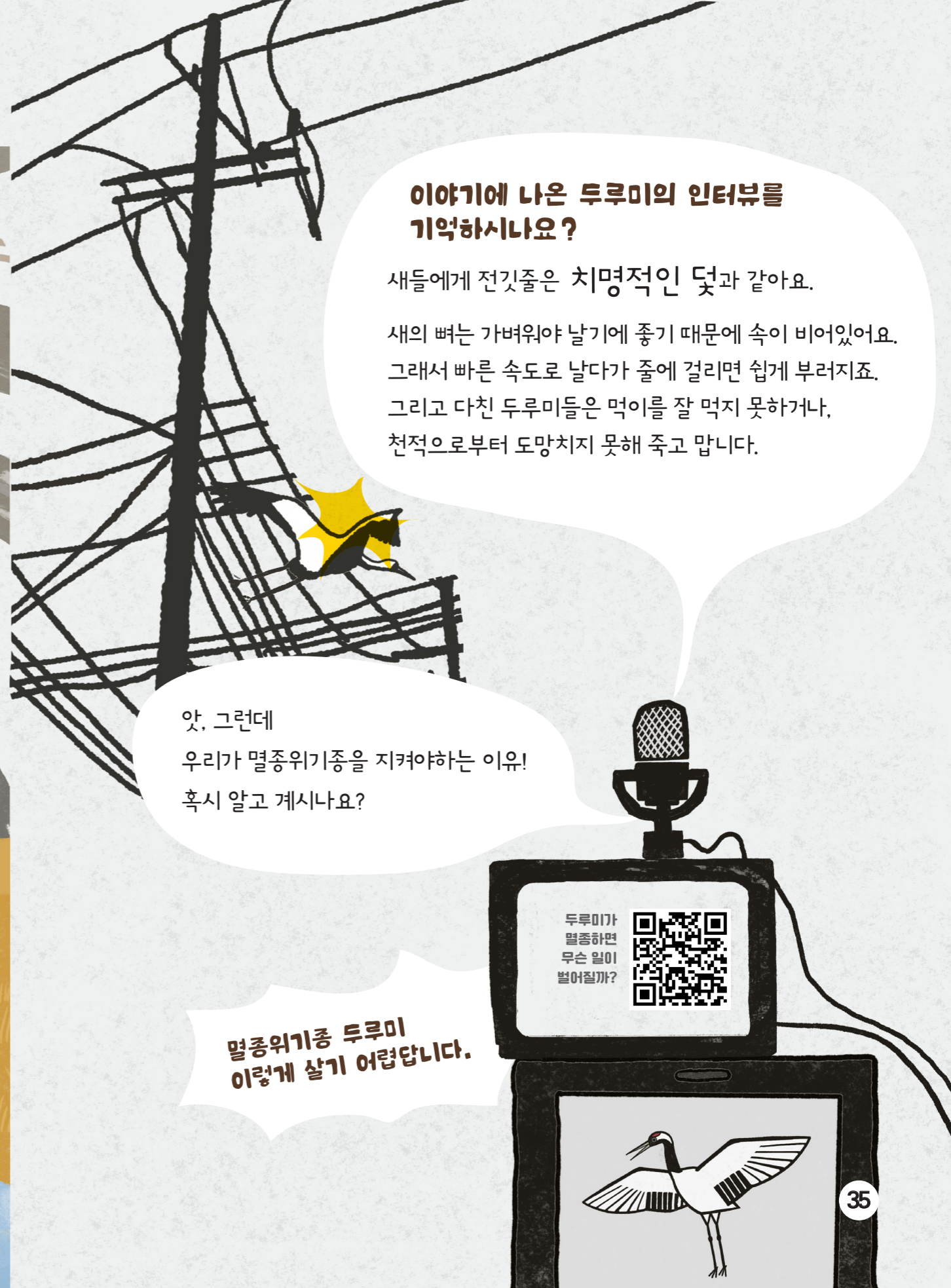
두루미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두루미가 머무르는 강 습지와  
갯벌이 줄어들고 있어요!

게다가 두루미는 매우 민감한  
동물이어서 자동차와 도시의  
소음과 빛을 매우 싫어해요!

사람들이 간척으로 갯벌을 땅으로 만들고,  
논과 밭에 건물을 짓기 때문이에요!  
개발 때문에 논과 밭이 줄어들면  
두루미의 먹이 터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남은 논과 밭에  
떨어진 작물을 먹다가 농약에  
중독되어 죽기도 하지요



이야기에 나온 두루미의 인터뷰를  
기억하시나요?

새들에게 전깃줄은 치명적인 덫과 같아요.

새의 뼈는 가벼워야 날기에 좋기 때문에 속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날다가 줄에 걸리면 쉽게 부러지죠.  
그리고 다친 두루미들은 먹이를 잘 먹지 못하거나,  
천적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해 죽고 맙니다.

앗, 그런데  
우리가 멸종위기종을 지켜야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멸종위기종 두루미  
이렇게 살기 어렵답니다.

두루미가  
멸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 다른 그림 찾기

## 두루미에게 더 안전한 곳을 찾아봐요!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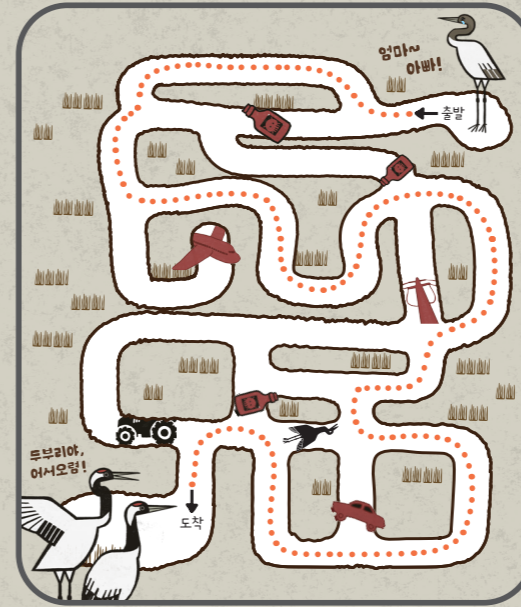
두루미가 먹이를 찾는 장면이에요.

왼쪽과 오른쪽, 어디가 두루미에게 더 안전한 곳인지 알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림 속에서 두루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찾아주세요!



### 해답



도움주신 분들  
박형욱 (와일드넷)





발행처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2길 20, 6층(보영빌딩)  
T. 02)338-9572~4 F. 02)338-9575  
H. www.ecoin.or.kr

기획 홍숙경, 이재욱, 홍정민 (생태지평연구소)  
글 이재욱, 홍정민  
그림 정김소리  
감수 박종길

제작 (주)생태환경디자인연구소 INNO





 Heungkuk x  해피빈 기부자  
공국학재

멸종위기종 두루미로 배우는 환경 교재 제작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환경이 아름다운 미래는 연구소  
생태지평



9 788994 394268

ISBN 978-89-94394-26-8 (PDF)